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가로수들이 잎을 다 떨어뜨리고 나면 겨울이 되겠지요? 벌써부터 추위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온에 민감한 사람들은 특히 환절기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해요. 건강보다 큰 재산은 없으니까요. 요즘은 교실에도 보일러가 들어와 추운 줄 모르고 공부할 수 있지만 성에가 하얗게 낀 유리창 너머 옹기종기 난로 불에 손을 쬐던 어린 시절의 겨울은 춥기만 했어요.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오는 겨울을 느끼며 마음만은 언제나 훈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눙치다 : 좋은 말로 마음을 풀어 누그러지게 하다.(심동호씨가 더 이상 감정을 눙쳐 삭일 수 없다는 투로 역정을 냈다. <김원일, 불의 제전> 또 '어떤 행동이나 말을 문제 삼지 않고 넘기다'의 의미도 있어요. (실컷 남의 흉을 보더니 다소 미안한지 자신의 말을 모두 농담이라고 눙치고는 바삐 방에서 나갔다.)

비보라 : 세찬 바람과 함께 휘몰아치는 비.(바깥 인도에 사람들이 제각기 비 피할 곳을 찾아 부산하게 이리저리 뛴다. 비보라로 바깥은 뽀얗다.)<황순원, 움직이는 성>

성에 : 기온이 영하일 때 유리나 벽 따위에 수증기가 허옇게 얼어붙은 서릿발.(차창에는 성에가 끼어서 밖이 뿌옇게 흐려 보였다.)<한수산, 유민> 물 위에 떠내려가는 얼음덩이는 '성엣장'이라고 해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일제와 권력 앞에 무너진 인간의 '순수' 그려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안회남 作 '소'

이 소설은 단편소설로 시간적 배경은 1944년 9월 26일부터 1945년 9월 26일 이후 1년 사이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간결한 문체를 사용해 문장이 명료하지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일제 강점하에서 고통의 세월을 견딘 1940년대 한국 최하층의 입장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죠. 1945년 <조광>에 발표된 이 작품은 작가의 징용 체험을 소설화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일제의 징용이 순박한 농민을 얼마나 현실적이고 증오에 찬 인물로 바꾸어 놓았는지도 잘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죠.

작년 9월 26일 충청남도 연기군에서 북구주 입천 탄광으로 134명이 징용되어 갔고, 그 중에는 별명이 '소'인 삼룡이도 있었다. 그에게 소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그의 얼굴 생김새와 태도가 소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룡이는 동료들이 소라고 부르면 성을 내며 야단을 치는 것이다.

내가 연기대 대장으로 사무실에 들어앉게 되었을 때 삼룡이는 나에게 자기를 굴에서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었다.

자기가 탄광에 오기 한 달 전에 이사장의 소 대신 자신의 소가 식용으로 공출되었고, 자신은 한 달 후 탄광으로 징용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소가 그렇게 죽었듯이 자신도 여기서 죽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과 소가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소라고 부르면 그 운명을 거부하기 위해 화를 낸 것이다. 그러다 갱내에서 낙반사고가 났고 제천 사는 박이동은 죽고, 같이 일하던 삼룡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사건이 일어났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소가 자기 대신에 죽어서 자신은 죽지 않은 것이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고, 징용에 끌려온 지 1년 만인 9월 26일 고향으로 돌아왔다. 나는 삼룡이의 초

1940년대 한국 최하층 사실적 묘사
작가의 징용 체험을 소설화로 유명

대로 그의 집을 방문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삼룡이를 만났다. 나는 즐겁게 잘 놀고 나오는 길에 빈 외양간을 발견했다. 나는 소가 없는 빈 외양간을 쳐다보며 죽은 박이동을 떠올렸다. 다시 옆을 쳐다보며 삼룡이는 역시 소라고 고쳐 생각하고 나왔다. 산모퉁이까지 배웅 나온 삼룡이는 '이사장의 소를 끌고 와야지'라며 험악한 낯빛으로 내 생각과는 딴판인 말을 하였다.

'소'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농경 문화권에서는 농사와 관련되고 주술적으로는 악귀를 물리치고 불교에서는 참마음을 뜻하죠. 절 벽화에는 '심우도'라는 그림이 자주 등장해요. 이러한 복합적 의미를 가진 '소'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삼은 것은 삼룡이란 인물이 농민이란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죠.

'소'라는 제목에서 우리는 농사를 떠올리고 '삼룡'이라는 약간 촌스러운 이름에서 토속적인 시골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지요. 그 삼룡이의 별명이 소라고 한다면 그의 성격이 착하고 심성이 고운 인물이란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농촌 어디에 가든 만나볼 수 있는 성격의 농부가 광부가 되었다는 사실부터 일제의 강제성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사장네 소 대신에 공출된 자신의 소는 삼룡이의 운명과 처지를 그대로 보여 주죠. 여기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정이 죽으러 이 탄광에 끌려온 것이고 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긴장, 억울함, 고향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뒤범벅이 된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이죠. 이러한 농민을 대표한 인물이 삼룡이였던 겁니다.

해방 후, 삼룡이의 집을 방문한 '나'는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보고 흐뭇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소가 없는 빈 외양간을 보고 낙반사고 때 죽은 박이동을 생각하나 삼룡이는 자신의 소를 찾아오겠다고 이사장의 소를 벼르죠. 이것은 이미 삼룡이가 과거의 순박하기만 한 농부가 아니라 징용으로 성격이 변화했음을 보여 주는 부분이에요. 일제의 착취와 핍박이 순박한 농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죽음의 고통 속에서 돌아온 삼룡이는 순박하고 착하기만 한 성격을 훼손당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세력이 일제만이 아니라 조선의 권력층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죠.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불교는 뭘 믿는건가요?

학교에서 신문을 보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뭘 믿는지 모른다고 하네요. 불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요?

불교는 '인과(因果)를 믿어요'

가끔 종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불교에서는 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지 애매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불교에서는 '인과(因果)를 믿는다'고 설명한다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면 뒤끝이 좋지 않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과를 숙명(宿命)이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처럼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설명은 이러한 생각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전생에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설법하셨습니다. 예컨대 전생의 잘못이 소금 한 줌 정도 된다고 합시다. 지금 삶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악업만 짓는다면, 그 삶을 물 한 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 한 컵에 소금 한 줌을 넣는다면 얼마나 짜겠습니까. 즉 그 분은 전생의 과보를 아주 괴롭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생 과보가 동일하다고 해도,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분의 삶은 강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물에 소금 한 줌 넣는다고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이렇듯 부처님의 설법에서 중심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꿔 먹는다면, 그 순간부터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새로운 마음으로 쭉 살아갈 수 있다면 어제까지와는 다른 인생이 열릴 것입니다.

서울 옥천암 청소년법회 지도법사 운산 스님

청동불상 제작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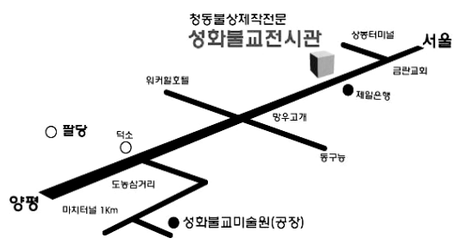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www.msdfarm.co.kr

"늘 피곤하고 몸이 천근만근"

"마늘 좋은 줄 알면서 냄새 때문에?"

밀양 신지식인 제1호 이용주가 개발한 흑마늘 진액은 가문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 했다.
수십종의 건강 식품을 연구 개발하였지만 이처럼 자기 이름을 내건 배짱은 제품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꼼보약방가 제조 공법도 매우 색다른 방법이다. 자연에서 아무런 첨가물 없이 전통 옹기에서 21일간 숙성한 흑마늘은 냄새없고 흡수가 빠르고 그만큼 느낌도 빠르다.

◆1박스(30팩) ₩45,000
◆2박스(60팩) ₩90,000
※2박스 구입시 숙성흑마늘 (판매가 ₩18000) 2×6팩 증정

흑마늘 숙성 과정

"숙성 흑마늘"이란? 토종 흑마늘을 자연 숙성 시킴으로서 마늘 특유의 불쾌한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고, 마늘 본래의 유효성을 손상시키는 일 없이, 생마늘에 비해 항산 화력이 거의 10배로 상승하며, 콜레스테롤의 산화 및 활성 산소 발생을 억제 예방하는 폴리페놀의 함유량이 대폭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꼼보약방가 흑마늘" 이래서 믿음이 간다
◆대한민국 토종 흑마늘로 까다로운 미국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일체의 첨가물없이 자기발효시킨 무가당, 무방부제, 무색소!!
◆전통방식의 숙성비법으로 마늘 특유의 냄새를 완벽하게 제거!!

"이것저것 먹어봐도 별로였다"

산삼 흑산고 黑蒜膏
◆1kg(5개월분) ₩398,000

늘 피곤하고 천근만근한 몸으로 무슨 일을 해내겠는가?
내 몸을 위해 딱히 믿고 먹을만한 건강식품의 선택이 쉽지는 않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당신의 몸을 위해 만든 건강 식품이 있다. 바로 배양근 산삼, 녹용, 천마, 토종흑마늘로 100일 동안 숙성 발효한 산삼흑산고이다.

"간편하고 먹기좋은 "이용주 흑마늘 환"

이용주 흑마늘환 세트
◆4개월분 ₩89,000

흑마늘, 검은깨, 흑미, 검은 콩으로 천연숙성한 먹기 좋고 간편한 "환"으로 안토시 아닌과 베타카로틴 등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해외로 수출되는 "황제 흑마늘"

황제 숙성 흑마늘
◆1개월분(2×15팩) ₩45,000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시장을 개척한 황제 흑마늘은 전통 방식 옹기 숙성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꼼보약방가 100년 정성으로 엄격한 검수를 거치는 3단계 품질 관리시스템을 적용한 웰빙 식품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100년 전통 100년 정성 명세당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35-1 ☎ 055)353-5001
농협 946-12-362513(예금주:최경란) 판매문의 : 금강선원 명명스님 017-587-7193
무료전화로 제품신청 080-353-5000